

『周易』 互體의 錯綜관계 분석

—錯·綜·錯綜관계 중심으로—

최 인 영*

< 目 次 >

I. 서론	III. 중천건과 중지곤
II. 호호체·호체·본괘체의 성립과 착종	IV. 수화기체와 화수미제
1. 착·중·착중	1. 호호체 수화기체와 화수미제의 호체
1) 착괘	2. 호체와 본괘의 착·중
2) 중괘	3. 착의 관계에 대하여
3) 착중괘	4. 중의 관계에 대하여
	V. 결론

<국문 초록>

착종(錯綜)이란 말은 당(唐)대의 공영달(孔穎達)이 맨 처음 사용하였고 래지덕(來知德)은 6개의 조는 변한 후에도 여전히 錯·綜과 中爻의 변화로 陰陽 循環의 이치를 체현하고 있다고 했다. 錯卦란 陰은 陽으로, 陽은 陰으로 치환(置換)시킨 경우를 말하며 綜卦란 卦를 거꾸로 뒤집어 도치(倒置)시킨 卦를 말한다. 錯綜卦란 錯이나 綜을 해도 같은 卦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互互體 重天乾과 互互體 重地坤은 陰陽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錯의 관계이나 綜을 했을 때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互互體 重天乾의 互體와 互互體 重地坤의 互體 역시 錯의 관계를 이루는 괘로 짝을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互互體가 錯의 관계이면

* 공주대학교 강사 / ch105050@daum.net

互體 역시 錯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고 그 互體에 속하는 本卦들의 관계 역시 錯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互互體 水火既濟와 互互體 火水未濟는 서로가 錯綜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互互體 水火既濟의 互體와 互互體 火水未濟의 互體 사이에는 錯의 관계와 錯綜의 관계 그리고 綜의 관계를 골고루 이루고 있으므로 각 互體에 속하는 本卦들의 관계 역시 錯綜과 錯 그리고 綜의 관계를 골고루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互互體 水火既濟와 互互體 火水未濟는 錯綜의 관계로서 互體 및 本卦 내에는 錯·錯綜·綜의 관계가 골고루 함께 존재하므로 단순히 錯의 관계를 이루는 乾·坤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고는 이들의 互互體·互體 및 本卦를 本象·內相·外象 三象으로 분류하고 그 사이에 錯·錯綜·綜의 관계로 이어지는 의미적 연관성을 『周易』의 「大象傳」이나 「彖傳」의 보편적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錯의 관계에 속하는 互互體 重天 乾과 重地 坤의 互體 및 本卦는 陰陽·表裏·兩面으로 配合의 관계를 이루며 그 의미로는 서로 보완하고 채워주는 관계라 말할 수 있다. 착종관계인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의 互體중 火水未濟와 水火既濟 그리고 雷澤歸妹와 風山漸은 錯綜의 관계이고 雷水解와 風火家人 그리고 火澤睽와 水山蹇은 錯의 관계이며 雷水解와 水山蹇 그리고 火澤睽와 風火家人은 綜의 관계이다. 호호체가 착종관계이면 호체는 錯·錯綜·綜의 관계가 균일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더불어 本卦 역시 互體와 같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錯의 관계는 저절로 수반되는 관계라면 錯綜의 관계는 陰陽을 바꾸나 자리를 뒤집으나 같은 卦가 되므로 吉凶이나 好惡가 번갈아 나타나거나 吉속에 凶이, 凶속에 吉이, 好속에 惡가 惡속에 好가 잠재되어 있어 인생의 好事多魔나 塞翁之馬등의 의미를 연상하게 한다.

綜의 관계는 爻位를 倒置시켜 생긴 卦이므로 爻位에 따른 역할을 찾는다면 吉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는 容易함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三象(互互體·本象, 互體·內象, 本卦·外象) 속에서 사이를 잇는 錯綜·錯·綜의 연관된 의미를 찾아 분석한다면 좀 더 근거 있는 폭넓은 卦 해석을 할 수 있음을 호체는 示唆하고 있다.

【주제어】 錯, 錯綜, 綜, 互互體, 互體, 本卦, 三象

I. 序 論

의리역학자는 괘에 담긴 德과 義를 취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면 상수역 학자들은 象과 數를 분석하여 卦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象數的 해석을 철저하게 배척하고자 했던 대표 인물은 王弼¹⁾로서 이후 의리역과 상수역으로 나누어진 계기가 된다. 왕필은 費氏易²⁾의 전통을 이어받아 취의론과 괘덕론을 위주로 하였다. 그가 남긴 저서 『周易注』는 『易傳』의 관점에서 경문을 해석하였으니 고문경학과와도 관계가 깊다고 하겠다. 그러한 왕필이었지만 '同人卦'의 '象傳'과 '睽卦' 上九爻辭에 대해서는 象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니 의식적으로 취상설을 배척하고 취의설을 위주로 하였지만 완벽하게 象을 떠나 『周易』을 해석할 수는 없었다. 반면에 주자는 '互體之說'은廢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정작 본인은 互體를 즐겨 활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주자가 互體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義를 중요하게 탐구하면서 互體의 중요성도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의 茶山 정약용은 '王弼이 爻變의 이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상·호체·괘변이 지닌 易詞 해석의 적합성을 부정하였다³⁾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실제로 호체를 占事 해석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또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을 『다산의 『周易』 해석체계』에서 김인철은 밝히고 있다. 정약용 역시 互體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연구하며 정리하였다는 것은 호체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卦義와 卦德, 象數的 互體를 동시에 卦解釋을 위해 추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고는 이러한 의미에 입각하여 互體로부터 생겨나는 三象과 卦와 卦 사이에 이어지는 錯·錯綜·綜의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卦 해석의 근원을 찾아보고자 함이다. 즉 매우 유기적인 『周易』을 해석해 나가 기엔 어느 것 하나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

1) 王弼(226-249): 위진 시기 사상가이자 의리역학파의 대표학자. 字: 輔嗣

2) 費直, 생물연대 미상: 字 長翁, 서한고문역학가. '費氏學'의 創者.

3) 『다산의 『주역』해석체계』: 김인철, 『다산의 『주역』해석체계』, 경인문화사, 2003, p.95.

며 또한 해석적인 측면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을 호체를 통해 설정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는 그동안 등한시 되었던 호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卦義와 卦德 그리고 象과 數에 의한 심화된 해석을 근본적으로 한층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64卦는 16개의 互體로 이루어지고 16개의 互體는 乾·坤·既濟·未濟 4개의 互互體⁴⁾로 귀속된다.⁵⁾ 64卦는 象을 외부로 드러낸 外象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6개의 互體는 내면에 흐르는 은밀한 내용이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니 內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4개의 互互體는 64卦와 互體의 本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本象이 바로 乾·坤·水·火로 되어 있어 四元質이 된다. 따라서 三象(外象·內象·本象)은 서로가 互體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을 反芻하면 발생하는 시작의 원인과 근원을 깊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4卦의 內象과 卦의 근원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면 아마 이 三象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바른 典據가 될 수 있다. 하지만 三象은 變爻가 있어 之卦가 생긴다면 다른 卦가 되므로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우연과 필연의 경계를 지우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본 논고는 本卦와 之卦의 해석보다는 본상·내상·외상(三象)의 카테고리 속에서 존재하는 卦體와 내면을 이어주는 錯·錯綜·綜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현상과 의미에 따른 특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여섯 개의 爻는 三才를 나타내고 있다. 互體란 본래에서 地에 속하는 初爻와 天에 속하는 上爻를 뺀 나머지 2·3·4·5爻중 3爻와 4爻를 중복 나열함으로써 6개의 爻를 세운 卦이다. 互互體는 互體에서 初爻와 上爻를 뺀 2·3·4·5爻중 3爻와 4爻를 중복 나열하여 세운 卦이다.(각주3 참조) 本卦에서 互互

4) 互互體란: 互體의 互體를 말한다. 최인영, 『周易』의 互體論에 대한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1.

5) 『易學啓蒙』, 『附論』 <序卦雜卦明義>: “互乾坤既未濟之十六卦, 卽諸卦之所互而成者也, 故十六卦又只成乾坤既未濟四卦, 猶十六事之歸於四象也.” 珍藏版本, 武陵出版有限公司, 1986.

體를 구해보면 天을 상징하는 5爻와 上爻, 그리고 地를 상징하는 初爻와 2爻를 제외한 나머지 人才에 해당하는 3爻와 4爻를 중심으로 세운 卦가 된다.

이것이 三象이 되는 기본 卦體가 된다. 이어서 本卦에서 互體, 互體에서 互互體 그리고 本卦에서 바로 互互體를 세워보고 重天乾·重地坤과 水火既濟·火水未濟의 互互體·互體·本卦體間的 錯·綜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I 章 서론에 이어 II 章에서는 互互體·互體·本卦體의 成立과 錯綜에 대해 알아보고 III 章에서는 互互體 重天乾과 互互體 重地坤의 錯關係를 살펴볼 것이며 IV.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의 錯綜, V 章에서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한다.

II. 互互體·互體·本卦體의 成立과 錯綜

三象중 外象의 64卦가 本象의 乾·坤·既濟·未濟 4卦에 귀속되는 과정을 互體·互互體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개의 卦는 天 [上爻·5爻] ·人 [4爻·3爻] ·地 [2爻·初爻] 三才로 나누어지며 互體는 본卦의 中爻(2·3·4·5爻)로서 初爻와 上爻를 제외하고 3爻와 4爻를 중복하여 세운다. 互互體는 互體의 中爻로서 初爻와 上爻를 제외하고 3爻와 4爻를 중복하여 세운다. 本卦에서 互互體는 人에 속하는 3·4爻를 중심으로 3·4·3은 下卦, 4·3·4는 上卦로 중복하여 세운다.

【이상의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本卦의 2·3·4爻는 互體의 下卦가 되고 3·4·5爻는 互體 上卦가 된다.
 互體의 2·3·4爻는 互互體의 下卦가 되고 3·4·5爻는 互互體 上卦가 된다.
 本卦의 3·4·3爻는 互互體의 下卦가 되었고 4·3·4爻는 互互體 上卦가 된다.
 즉 『周易』은 하늘 [天] ·사람 [人] ·땅 [地] 三才를 나타내는 여섯 개의 爻 가운데 人才에 속하는 3·4爻를 중복하여 互體가 되고 3·4爻가 중심이 되어 互互體가 되므로 『周易』은 전적으로 人才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互互體 (火水未濟)	本卦 (火地晉)	互體 (水山蹇)	互互體 (火水未濟)
☲	☲	☲	☲
☵	☵	☵	☵

『周易』은 天道에 근본하나 人事에로 귀결되니 인간이야 말로 세상의 핵심적 존재임을 互體·互互體는 나타내고 있다. 또한 『周易』은 하늘이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주재하는 가운데 다양하게 일어나는 인간의 내면적 삶을 폭넓게 나타내었으니 하늘은 인간을 위해 존재 한다는 것을 호체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듯 3爻와 4爻가 중심이 되어 互體·互互體를 이룬다는 것은 하늘도 인간에 관한 것은 인간을 떠나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앞에서 錯綜論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은 唐代의 孔穎達⁶⁾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孔穎達은 經과 傳의 文句들을 錯綜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來知德은 象을 중심에 두고 錯綜과 變爻와 互體를 占筮의 해석 틀로 삼았다. 錯·綜卦란 한 개의 卦를 이루는 여섯 개의 爻를 陰陽의 配合爻로 바꾸어 만든 卦(錯)와 初爻부터 上爻까지의 자리를 거꾸로 倒置시킨 卦(綜)를 말한다. 이러한 錯·綜은 本卦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된다. 來知德은 南宋 蔡淵⁷⁾이 말한 待對와 流行을 待對의 현상을 錯으로, 流行의 현상을 綜의 이치로 설명하며 天地간에 일어나는 造化現象을 論하였다.

또한 설괘전에서 '天地正位...'라 말한 乾·坤괘의 관계처럼 錯관계가 공간의 양상으로 비유될 수 있다면 綜은 회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時間性의 양상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괘를 180° 회전시킨 [倒置]

6) 孔穎達(574-648), 당 태종의 명을 받아 『주역』 『좌전』 『상서』 『모시』 『예기』에 주석을 달아 『五經正義』를 편찬, 河北의 冀州사람으로서 당대의 유명한 경학자.

7) 蔡淵(1156-1236), 南宋시기의 理學家, 저서 『周易訓解』 『易象意言』 『卦爻詞旨』 등이 있다. 蔡元定의 長子로서 안으로는 父親 밖으로는 朱熹에게 배웠다.

괘가 綜卦이다.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양상이 유행하는 시계모양과 같으며 12시를 기점으로 밤과 낮이 달라지는 것처럼 만약 한 번 더 회전시킨다면 본래 卦대로 돌아온다. 그렇다고 늘 상 똑같은 것이 아닌 것이 예를 들면 봄은 봄이지만 경우에 따라 올봄이 작년 봄과 같지 않음이다.

1. 錯·綜·錯綜

錯卦란 陰陽을 짝으로 배합시킨 卦이다. 즉 陰에는 陽으로, 陽에는 陰으로 짝지은 卦를 말한다. 예를 들면 重天乾과 重地坤은 錯卦의 관계이며 이와 같은 관계에 해당하는 卦를 말한다. 한 卦의 6位 이면에는 陰陽의 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12位가 된다는 王夫之의 乾坤並建論의 바탕이 된다.⁸⁾ 王夫之는 綜으로 받을 수 있는 卦는 투명하게 드러나는 卦가 되므로 明이라 하고 綜해도 같은 卦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幽라 말하며 陰陽을 짝으로 錯하면 은밀하게 감추어진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上經 27번째 오는 山雷頤卦는 綜해도 같은 卦가 되므로 錯으로 받아 28번째 澤風大過卦가 온 것이다. 重水坎이나 重火離卦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나아가 下經에 와서도 綜한 卦가 같은 경우에는 錯으로 받아 이어진다.

1) 錯卦

錯卦란 互互體 重天乾과 重地坤의 관계이다. 따라서 그기에 속하는 互體와 本卦 역시 錯의 관계임을 발견할 수 있다. (綜의 관계는 綜을 했을 때 변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호호체 중천건의 호체는 중천건·택천괘·천풍구·택풍대과이다.
- 호호체 중지곤의 호체는 중지곤·산지박·지뢰복·산뢰이이다.
- 호호체 중천건과 중지곤의 호체는 착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다.
- 호체 중천건과 중지곤의 본괘 역시 착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다.

8) 王夫之(1619-1692), 중국 호남성 형양출생, 字-三三, 而農, 號-廣齋, 매강옹 등, 多文·史·哲에 두루 달통, 주희와 함께 중국 전통철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경지에 오름.

2) 綜卦

綜卦란 卦를 거꾸로 倒顛한 卦이다. 初爻는 上爻로, 2爻는 5爻로, 3爻는 4爻로, 4爻는 3爻로, 5爻는 2爻로, 上爻는 初爻가 되는 卦이다. 예를 들면 水雷屯卦와 山水蒙卦는 綜의 관계이며 이와 같은 관계의 卦를 모두 綜의 관계라 말한다. 澤山咸卦로 시작하는 下經에 와서도 綜으로 도전된 雷風恒卦로 받는다.

3) 錯綜卦

錯綜卦란 錯卦와 綜卦가 같은 卦를 말한다. 64괘중 錯해도 綜해도 같은 卦가 되는 것은 水火既濟卦와 火水未濟卦, 天地否卦와 地天泰卦, 雷澤歸妹卦와 風山漸卦, 澤雷隨卦와 山風蠱卦가 있다. 이들 卦 내에는 明과 幽가 同時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錯卦의 내재된 의미와 綜卦의 내재된 의미가 포괄적으로 錯綜卦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錯綜의 관계에서 錯·錯綜·綜의 관계가 다양하게 들어 있음으로 나타난다.

- ①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는 錯綜의 관계이다. 따라서 互體와 本卦는 錯·錯綜·綜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다.
 - 호호체 수화기제의 호체는 화수미제·뇌수해·화택규·뇌택귀매이다.
 - 호호체 화수미제의 호체는 수화기제·풍화가인·수산건·풍산점이다.
- ②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 호체의 錯 관계는 解·家人, 睽·蹇이다.
 - 호체 뇌수해와 풍화가인은 錯관계이므로 그 본괘들도 역시 錯관계로 짝지을 수 있다.
 - 호체 화택규와 수산건은 錯관계이므로 그 본괘들도 역시 錯관계로 짝지을 수 있다.
- ③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 호체의 錯綜관계는 未濟·既濟, 歸妹·漸이다.
 - 互體 未濟와 既濟는 錯을 해도, 綜을 해도 같은 錯綜卦이다. 그러므로 그 本卦들 역시 錯·錯綜·綜卦로 짝지을 수 있다.
 - 互體 歸妹와 漸은 錯을 해도 綜을 해도 같은 錯綜卦이다. 그러므로

그 本卦들 역시 錯·錯綜·綜卦로 짝지을 수 있다.

④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 호체의 綜관계는 解·蹇, 睽·家人이다. 그러므로 그 본괘들 역시 綜관계로 짝지을 수 있다.

- 호체 解와 蹇은 綜의 관계이므로 그 본괘들 역시 綜의 관계이다.
- 호체 睽와 家人은 綜의 관계이므로 그 본괘들 역시 綜의 관계이다.

※ 互互體·互體·本卦의 錯·綜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互互體가 錯의 관계이면 互體·本卦를 錯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고 互互體가 錯綜의 관계이면 互體·本卦 역시 錯·錯綜·綜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錯綜의 관계일 때는 錯·錯綜·綜의 관계가 골고루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互互體와 互體·本卦】

互互體		重天乾 ☰															
互體	乾(本互體)☰	夬 ☱				姤 ☵				大過 ☱							
本卦	乾 ☰	夬 ☱	姤 ☵	大過 ☱	大有 ☱	恒 ☱	大壯 ☱	鼎 ☱	同人 ☱	咸 ☱	遯 ☶	革 ☱	離 ☲	豐 ☲	旅 ☱	小過 ☱	
互互體	重地坤 ☷																
互體	坤(本互體)☷	剝 ☶				復 ☱				頤 ☶							
本卦	坤 ☷	剝 ☶	復 ☱	頤 ☶	比 ☶	益 ☱	觀 ☱	屯 ☱	師 ☱	損 ☱	臨 ☱	蒙 ☱	坎 ☵	渙 ☱	節 ☱	中孚 ☱	
互互體	水火既濟 ☵☲																
互體	未濟(對互體)☲	解 ☱				睽 ☱				歸妹 ☱							
本卦	既濟 ☵	家人 ☱	蹇 ☵	漸 ☱	謙 ☱	艮 ☶	明夷 ☱	賁 ☱	需 ☱	小畜 ☱	井 ☱	巽 ☴	泰 ☱	大畜 ☱	升 ☱	蠱 ☱	
互互體	火水未濟 ☲☵																
互體	既濟(對互體)☵	家人 ☱				蹇 ☱				漸 ☱							
本卦	未濟 ☲	解 ☱	睽 ☱	歸妹 ☱	履 ☱	兌 ☱	訟 ☱	困 ☱	晉 ☱	豫 ☱	噬嗑 ☲	震 ☳	否 ☷	萃 ☱	无妄 ☱	隨 ☱	

Ⅲ. 重天乾과 重地坤 (도표 1 참조)

1. 互互體 重天乾과 互互體 重地坤은 錯卦의 관계이다.

따라서 互體 역시 錯의 관계로 존재한다. 본 논고는 『周易』 「大象傳」과 「彖傳」의 보편적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적인 측면에서 錯의 관계를 간략하게 관련 지어 보고자 한다.

<표 2> 【互互體 重天乾과 重地坤의 互體】

錯	互互體(본상)	互體(내상)			
	重天 ≡ 乾 ⁹⁾ ≡	重天 ≡ 乾 ≡	天風 ≡ 姤 ¹⁰⁾ ≡	澤天 ≡ 夬 ¹¹⁾ ≡	澤風 ≡ 大過 ¹²⁾ ≡
重地 ≡ 坤 ¹³⁾ ≡	重地 ≡ 坤 ≡	地雷 ≡ 復 ¹⁴⁾ ≡	山地 ≡ 剝 ¹⁵⁾ ≡	山雷 ≡ 頤 ¹⁶⁾ ≡	

互互體의 乾·坤은 錯卦의 관계로서 互體 乾·坤을 비롯하여 그에 속하는 本卦도 錯卦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로써 본고는 호호체가 錯卦의 관계라면 그에 따르는 互體·本卦의 관계 모두 錯卦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重天乾: 乾, 元亨利貞. 象曰天行 建君子以 自彊不息. 彖曰大哉 乾元 萬物資始乃通天 運行雨施品物流形 大明終始….

10) 天風姤: 象曰天下有風 姤后以施命誥四方. 彖曰姤遇也… 天下大行也 姤之時義 大矣哉.

11) 澤天夬: 象曰澤上於天夬 君子以施祿及下… 彖曰夬 決也, 剛決柔也 ….

12) 澤風大過: 象曰澤滅木大過 君子以獨立不懼 遯世无悶. 彖曰大過 大者過也….

13) 重地坤: 象曰地勢坤 君子以 厚德載物. 彖曰至哉 坤元萬物資生 乃順承天 坤厚載物… 品物咸亨….

14) 地雷復: 象曰雷在地中復 … 彖曰復亨 剛反 動而以順行…反復其道七日來復 天行也….

15) 山地剝: 象曰山附於地剝 … 彖曰剝 剝也 柔變剛也 … 君子 尚消息盈虛 天行也.

16) 山雷頤: 象曰山下有雷頤… 彖曰頤貞吉 養正則吉也 …自求口實 觀其自養也 天地養 萬物….

<표 3-1> 【互互體 重天乾과 重地坤의 互體와 本卦】

錯	互互體(본상)	互體(내상)	本卦 (의상)			
	重天 ☰ 乾 ☰	重天 ☰ 乾 ☰	重天 ☰ 乾 ☰	天風 姤 ☰ 姤 ☰	澤天 夬 ☰ 夬 ☰	澤風 大過 ☱ 大過 ☱
重地 ☷ 坤 ☷	重地 ☷ 坤 ☷	重地 ☷ 坤 ☷	地雷 復 ☱ 復 ☱	山地 剝 ☶ 剝 ☶	山雷 頤 ☶ 頤 ☶	

卦義를 살펴볼 때는 언제나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卦를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드러나는卦에만 국한해서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의미의 반쪽만을 살피는 것이 된다. 계사전에 '天地란 따로 말하지 않는다.'¹⁷⁾고 하였다. 즉 重天乾卦를 바라볼 때는 언제나 重地坤卦와 함께 생각해야 乾卦를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다. 天風姤卦를 생각할 때는 地雷復卦를, 澤天夬卦를 생각할 때는 山地剝卦를, 澤風大過卦를 생각할 때는 山雷頤卦와 함께 생각해야 의미를 온전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말도 된다. 즉 重天乾의 元·亨·利·貞은 重地坤에서 나타나므로 重地坤 역시 重天乾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연한 만남은 무언가 어떤 것이 생겨나게 되므로 地雷復卦를 생각하며 天風姤卦를 바라보아야 하며 澤天夬卦의 결단함은 깎아내는 山地剝卦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이다. 澤風大過卦의 初·上爻가 허약하고 가운데가 견고하다면 山雷頤卦의 初·上爻가 단단하고 가운데가 허약함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互體 天風姤卦와 地雷復卦의 本卦 관계를 살펴보고 짝지어지는 괄와 괄 사이의 의미를 연관 지어 보고자 한다. 이는 「서괘전」에서 64괄가 이어지는 당위성과 필연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이다. 여기서 말하는 괄의 관계는 해석적인 측면에서 호체 천풍구괄에 속하는 본괄와 호체 지뢰복괄에 속하는 본괄 중 짝지어지는 괄 사이에 흐르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괄의 근원과 해석의 바운더리(boundary)를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17) 「繫辭下傳」: 제 6장 '…乾陽物也 坤陰物也 陰陽合德而剛柔有體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其稱名也雜而不越…'

<표 3-2> 【互互體 重天乾과 重地坤의 互體와 本卦】

錯	互互體(본상)	互體(대상)	本卦(의상)			
	重天 ≡ 乾 ≡	天風 ≡ 姤 ≡	天火 ≡ 同人 ¹⁸⁾ ≡	澤山 ≡ 咸 ¹⁹⁾ ≡	天山 ≡ 遯 ²⁰⁾ ≡	澤火 ≡ 革 ²¹⁾ ≡
重地 ≡ 坤 ≡	地雷 ≡ 復 ≡	地水 ≡ 師 ²²⁾ ≡	山澤 ≡ 損 ²³⁾ ≡	地澤 ≡ 臨 ²⁴⁾ ≡	山水 ≡ 蒙 ²⁵⁾ ≡	

만남을 주도하는 互體 天風姤는 互體 地雷復의 땅속 우레를 생성하여 회복하게 한다. 互體 天風姤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本卦 天下同人是 互體 地雷復의 本卦 地水師의 의미를 이면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뜻을 같이 하는 同인의 만남은 군사로 키우는 좋은 기회일 것이며 또한 그 무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장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互體 天風姤의 本卦 澤山咸의 만남은 山澤損의 덜어냄을 기약하는 만남일 것이며 互體 天風姤의 本卦 天山遯의 만남은 互體 地雷復의 本卦 地澤臨으로 臨했기에 天山遯의 물러나는 때를 만났음을 생각해야 한다. 互體 天風姤의 本卦 澤火革의 만남은 互體 地雷復의 本卦 山水蒙의 혼돈과 어리석음의 시대를 바로잡아 나가야 함을 澤火革卦가 알려주고 있다. 다음은 互互體 重天乾의 互體 澤天夬와 互互體 重地坤의 互體 山地剝의 本卦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18) 天下同人: 象曰天與火同人... 彖曰同人 柔得位 ...同人曰同人于野亨利涉大川乾行也...唯君子 爲能通天下之志.

19) 澤山咸: 象曰山上有澤咸 君子以虛受人. 彖曰咸 感也 ...二氣感應以相與...天地感而萬物化生...

20) 天山遯: 象曰天下有山遯... 彖曰遯亨 遯而亨也 剛當位而應 與時行也 ...遯之時義 大矣哉.

21) 澤火革: 象曰澤中有火革 ... 彖曰革水火相息...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 革之時大矣哉.

22) 地水師: 象曰地中有水師... 彖曰師衆也 貞正也 能以衆正 可以王矣...

23) 山澤損: 象曰山下有澤損... 彖曰損 損下益上 其道上行 損而有孚 ...損益盈虛 與時偕行.

24) 地澤臨: 象曰澤上有地 臨... 彖曰臨剛浸而長 說而順 剛中而應...

25) 山水蒙: 象曰山下出泉蒙 君子以果行育德. 彖曰蒙山下有險 險而止蒙 蒙亨以亨行 時中也...蒙以養正 聖功也.

<표 3-3> 【互互體 重天乾과 重地坤의 互體와 本卦】

錯	互互體	互體	本卦			
	重天 ≡ 乾 ≡	澤天 ≡ 夬 ≡	火天 ≡ 大有 ²⁶⁾ ≡	雷風 ≡ 恒 ²⁷⁾ ≡	雷天 ≡ 大壯 ²⁸⁾ ≡	火風 ≡ 鼎 ²⁹⁾ ≡
重地 ≡ 坤 ≡	山地 ≡ 剝 ≡	水地 ≡ 比 ³⁰⁾ ≡	風雷 ≡ 益 ³¹⁾ ≡	風地 ≡ 觀 ³²⁾ ≡	水雷 ≡ 屯 ³³⁾ ≡	

‘설괘전’에 산택통기(山澤通氣)라 말하였다. 互體 澤天夬와 互體 山地剝은 천지의 못과 산으로서 夬의 결단함에는 깎이는 剝이 필수적으로 수반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互體 澤天夬의 本卦 火天大有는 互體 山地剝의 本卦 水地比의 함께함이 없이는 안 될 것이며 또한 태양은 하늘에 존재하고 물은 땅에 존재하니 火天과 水地의 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날로 무궁해 질 수 있을 것이다. 互體 澤天夬의 本卦 雷風恒과 互體 山地剝의 本卦 風雷益은 ‘설괘전’에 뇌풍상박(雷風相薄)이라 하였으니 그 이로움이 오래하면 할수록 무르익어 갈 것이며 우레와 바람은 산과 땅을 깎아내지만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화작용에 의하여 나날이 유익함이 더해갈 것이다.

互體 澤天夬의 本卦 雷天大壯은 하늘의 우뢰로서 장대하고 우람한 소리이다. 互體 山地剝의 本卦 風地觀은 땅을 스치는 바람소리이다. 그러므로 大壯의 우렁찬 소리와 觀의 땅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는 天地의 소리가 된다. 互體 澤天夬의 本卦 火風鼎과 互體 山地剝의 本卦 水雷屯은 설괘전에 ‘水火不相射’라 하였으니 불과 바람·물과 우레 부딪는 소리가 완전히 다른

- 26) 火天大有: 象曰火在天上大有… 彖曰大有柔 得尊位 大中而上下應之曰 大有…
 27) 雷風恒: 象曰雷風恒… 彖曰恒 久也 剛上而柔下雷風 相與巽而動 剛柔皆應恒…
 28) 雷天大壯: 象曰雷在天上大壯… 彖曰大壯大者壯也 剛以動故壯 大壯利貞大者正也 …
 29) 火風鼎: 象曰木上有火鼎 君子以正位凝命. 彖曰鼎象也 以木巽火亨飪也…以享上帝而大亨以養聖賢…
 30) 水地比: 象曰地上有水比… 彖曰比 吉也 比輔也 下順從也 …
 31) 風雷益: 象曰風雷益… 彖曰益損上益下 民說无疆 自上下下 其道大光.
 32) 風地觀: 象曰風行地上觀… 彖曰大觀在上順而巽 中正以觀天下…
 33) 水雷屯: 象曰雲雷屯… 彖曰屯剛柔 始交而難生 動乎險中 大亨貞 雷雨之動滿盈…

물질로 변화시키며 만물을 풍요롭게 한다. 다음은 互互體 重天乾의 互體 澤風大過와 互互體 重地坤의 互體 山雷頤의 本卦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4> 【互互體 重天乾과 重地坤의 互體와 本卦】

錯	互互體	互體	本卦			
	重天 乾	澤風 大過	重火 離 ³⁴⁾	雷火 豐 ³⁵⁾	火山 旅 ³⁶⁾	雷山 小過 ³⁷⁾
重地 坤	山雷 頤	重水 坎 ³⁸⁾	風水 渙 ³⁹⁾	水澤 節 ⁴⁰⁾	風澤 中孚 ⁴¹⁾	

互互體 重天乾의 互體 澤風大過는 크게 지나침이다. 互互體 重地坤의 互體 山雷頤는 바르게 길러내는 때이다. 설괘전에 '山澤通氣·水火不相射'라 말하였으니 互互體 重天乾의 互體 澤風大過 本卦 重火離와 互互體 重地坤의 互體 山雷頤 本卦 重水坎은 天地 사이의 못·바람·산·우레·불과 물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독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보완적인 존재이다. 하늘에 걸리는 것과 땅을 의지하는 요소들로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 불과 물·바람과 못이 크게 지나칠 때가 풍요롭게 자라나는 때이다. 互體 澤風大過의 本卦 雷火豐은 우레와 불이다. 互體 山雷頤의 本卦 風水渙은 바람과 물이다. 우레와 불·바람과 물의 조화로움은 豐과 渙의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요소가 된다. 互體 澤風大過의 本卦 火山旅의 火·山은 互體

34) 重火離: 象曰明兩作離 大人以繼明... 彖曰離 麗也 日月麗乎天... 重明以麗乎正 乃化成天下...

35) 雷火豐: 象曰雷電皆至豐 ... 彖曰豐大也 明以動故豐...

36) 火山旅: 象曰山上有火旅... 彖曰旅小亨柔 得中乎外而順乎剛 止而麗乎明...

37) 雷山小過: 象曰山上有雷小過... 彖曰小過小者 過而亨也 過以利貞 與時行也...

38) 重水坎: 象曰水洊至習坎... 彖曰習坎 重險也 水流而不盈 行險而不失其信 維心亨 乃以剛中也...

39) 風水渙: 象曰風行水上渙... 彖曰渙亨 剛來而不窮 柔得位乎外而上同...

40) 水澤節: 象曰澤上有水節... 彖曰節亨剛柔 分而剛得中 苦節不可貞 其道窮也...

41) 風澤中孚: 象曰澤上有風 中孚... 彖曰中孚 柔在內而剛得中 說而巽 孚 乃化邦也...

山雷頤의 本卦 水澤節의 水·澤을 동반해야만 온전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불붙은 산은 오로지 물로 적셔야 진정되므로 旅의 입장에서는 節을 하지 않으면 위태로워짐을 나타내고 있다.

互體 澤風大過의 本卦 雷山小過는 작은 지나침이다. 小過가 쌓이고 쌓이면 大過가 될 수 있다. 互體 山雷頤의 本卦 風澤中孚는 믿음이다. 길러냄이란 믿음 가운데 있음을 말한다. 믿음이란 원래 작은 지나침이 없을까? 길러내는 마음은 뭔가 믿고 싶은 믿음에 한해 있기 때문에 큰 지나침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中孚의 믿음은 小過의 작은 의심들을 뿌리쳐야 하는 부담이 내재되어 있다. 지금까지 互互體 乾·坤과 그에 속하는 互體·本卦를 짝맞추어 관련지어 본 결과 錯卦의 사이에는 상호보완적 관계의 당위성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의 결실을 맺는 데는 天地·山澤·雷風·水火가 서로 짝하여 합한 다음 무한한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IV. 水火既濟와 火水未濟

- 互互體의 錯綜관계는 互體와 本卦내에 錯·錯綜·綜 關係의 卦로 짝지을 수 있다.

1.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의 互體

<표 4>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의 互體】

錯 綜	互互體	錯綜 互體		錯 互體		綜 互體	
	水火 ䷗ 既濟 ⁴²⁾	火水 ䷝ 未濟	雷澤 ䷑ 歸妹 ⁴³⁾	雷水 ䷏ 解 ⁴⁴⁾	火澤 ䷔ 睽 ⁴⁵⁾	雷水 ䷑ 解	火澤 ䷔ 睽
火水 ䷝ 未濟 ⁴⁶⁾	水火 ䷗ 既濟	風山 ䷍ 漸 ⁴⁷⁾	風火 ䷛ 家人 ⁴⁸⁾	水山 ䷇ 蹇 ⁴⁹⁾	水山 ䷇ 蹇	風火 ䷛ 家人	

앞의 도표를 살펴보면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는 互體에 錯綜의 관계와 錯·綜의 관계가 골고루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의 關係부터 살펴보면 水火既濟를 錯하면 火水未濟가 된다. 그리고 綜해도 火水未濟가 된다. 火水未濟 역시 錯해도 水火既濟가 되고 綜해도 水火既濟가 된다. 그러므로 水火既濟와 火水未濟는 錯·綜이 같은 卦에 속한다. 이렇게 錯·綜이 같은 卦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 뿐만 아니라 雷澤歸妹와 風山漸·天地否와 地天泰·澤雷隨와 山風蠱등이 있다. 錯卦의 관계는 앞에서 互互體 重天乾과 重地坤을 살펴본 것처럼 상대적 역할로서 서로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관계에 해당한다. 한편 綜卦는 爻位가 거꾸로 倒置된 卦이므로 서로간의 입장관계가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錯綜이 같은 卦는 錯과 綜의 포괄적인 의미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중 錯互體는 雷水解·風火家人, 火澤睽·水山蹇이 있으며 綜互體는 火澤睽·風火家人, 雷水解·水山蹇이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雷水解卦와 風火家人卦는 錯의 관계가 될 것이고 水山蹇卦와는 綜의 관계가 된다.

2. 互體와 本卦의 錯·綜

- 互體 火水未濟와 水火既濟중 本卦의 錯綜관계는 既濟·未濟, 漸·歸妹이고 錯 관계는 家人·解, 蹇·睽이며 綜 관계는 家人·睽, 蹇·解이다.

-
- 42) 水火既濟: 象曰水在火上 既濟… 彖曰既濟亨 小者亨也 利貞剛柔 正而位當也…
 43) 雷澤歸妹: 象曰澤上有雷 歸妹… 彖曰歸妹 天地之大義也 天地不交而萬物 不興…
 44) 雷水解: 象曰 雷雨作 解… 彖曰解 險以動 動而免乎險 解…
 45) 火澤睽: 象曰上火下澤 睽… 彖曰睽 火動而上 澤動而下…天地睽而其事同也 男女 睽而其志通也…
 46) 火水未濟: 象曰火在水上 未濟… 彖曰未濟亨 柔得中也…
 47) 風山漸: 山上有木 漸… 彖曰漸之進也 女歸吉也 進得位 往有功也…
 48) 風火家人: 象曰風自火出 家人… 彖曰家人女 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
 49) 水山蹇: 象曰山上有水 蹇… 彖曰 蹇難也 險在前也 見險而能止 知矣哉…

<표 4-1>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의 互體와 本卦】

錯 綜	互互體 (본상)	작종互體 (내상)	錯綜 本卦 (외상)		錯 本卦 (외상)		綜 本卦 (외상)	
	水火 ≡ 既濟 ≡	火水 ≡ 未濟 ≡	水火 ≡ 既濟 ≡	風山 ≡ 漸 ≡	風火 ≡ 家人 ≡	水山 ≡ 蹇 ≡	風火 ≡ 家人 ≡	水山 ≡ 蹇 ≡
火水 ≡ 未濟 ≡	水火 ≡ 既濟 ≡	火水 ≡ 未濟 ≡	雷澤 ≡ 歸妹 ≡	雷水 ≡ 解 ≡	火澤 ≡ 睽 ≡	火澤 ≡ 睽 ≡	雷水 ≡ 解 ≡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는 互體 역시 火水未濟와 水火既濟로서 서로 어긋나게 반복되며 떨어질 수 없는 錯綜의 관계이다. 本卦 역시 錯綜卦로 水火既濟와 火水未濟가 있으며 風山漸과 雷澤歸妹도 있다. 水火既濟와 火水未濟는 이롭과 이루지 못함으로 卦德을 삼고 있고 風山漸과 雷澤歸妹는 여자가 시집가는 의미를 卦德으로 삼고 있다.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호체 雷澤歸妹든 風山漸이든 既濟나 未濟와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한 알의 粒子라도 陰·陽配合이나 綜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으니 錯·綜의 관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本卦에서 風火家人의 錯卦는 雷水解이고 綜卦는 火澤睽이다. 이를 자연으로 본다면 우레와 물은 바람과 불을 만나야 엉겼던 것들이 곧장 풀어지게 된다. 人事로 들어가 風火家人의 화목한 집안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 엉긴 감정들이 풀리는 雷水解의 과정도 있을 것이다. 또한 風火家人이 初爻부터 자리를 도치(倒置)시켜 綜하여 바뀐다면 爻位가 달라지므로 입장이 바뀔 수 있어 마땅하지 못한 睽의 관계도 될 수 있다. 錯의 관계에서 水山蹇은 火澤睽와 짝하고 있으므로 산 넘고 물 건너는 어려움 속에는 서로 눈 흘기고 등지는 睽의 관계가 앞뒤로 이면에 충분히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水山蹇卦를 倒置시키면 雷水解卦가 되고 睽卦를 도치시키면 家人卦가 되므로 어려운 과정에서 입장을 바꾸어 보면 쉽게 풀릴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거나 분석할 때 錯이나 綜으로 접근한다면 容易할 것이리라는 것을 시사(示唆)한다.

다음은 互體 雷澤歸妹와 風山漸의 本卦를 살펴볼 것이다. 互體 雷澤歸妹

와 風山漸의 本卦중 錯綜관계의 卦는 地天泰와 天地否, 山風蠱와 澤雷隨이다. 그리고 本卦 山天大畜의 錯卦는 澤地萃이며 綜卦는 天雷无妄이고 本卦 地風升의 錯卦는 天雷无妄이며 綜卦는 澤地萃이다.

<표 4-2>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의 互體와 本卦】

錯 綜	互互體 (본상)	錯綜互體 (대상)	錯綜 本卦 (외상)		錯 本卦 (외상)		綜 本卦 (외상)	
	水火 ☵☲ 既濟 ☵☲	澤澤 ☱☱ 歸妹 ☱☲	地天 ☷☰ 泰 ⁵⁰⁾ ☷☰	山風 ☱☴ 蠱 ⁵¹⁾ ☱☴	山天 ☶☰ 大畜 ⁵²⁾ ☶☰	地風 ☱☴ 升 ⁵³⁾ ☱☴	山天 ☶☰ 大畜 ☶☰	地風 ☱☴ 升 ☱☴
火水 ☲☵ 未濟 ☲☵	風山 ☳☴ 漸 ☳☴	天地 ☷☷ 否 ⁵⁴⁾ ☷☷	澤雷 ☱☳ 隨 ⁵⁵⁾ ☱☳	澤地 ☱☷ 萃 ⁵⁶⁾ ☱☷	天雷 ☳☳ 无妄 ⁵⁷⁾ ☳☳	天雷 ☳☳ 无妄 ☳☳	澤地 ☱☷ 萃 ☱☷	

互體 雷澤歸妹와 風山漸은 錯綜卦로서 두 卦 모두 여자가 시집가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互體 雷澤歸妹의 本卦 地天泰와 互體 風山漸의 本卦 天地否 그리고 山風蠱·澤雷隨卦는 錯綜의 관계에 있다. 雷澤歸妹와 風山漸은 앞에서 水火既濟·火水未濟와 함께 살펴보았으니 여기서는 地天泰·天地否와 山風蠱·澤雷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錯綜卦의 관계에 있는 地天泰·天地否는 하늘과 땅의 통합과 막힘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으며 澤雷隨·山風蠱는 달과 태양이 서로를 따라 하루가 가고, 세월이 흘러 변화를 도모해 나아감이다.

사람은 이러한 자연의 조건에 맞추어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들어가는 것처럼 하루하루 변해가는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이치를 여기서는 錯綜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이렇듯 錯綜의 관계에 있는 卦들은 하나같이

50) 地天泰: 象曰天地交 泰 后以財成天地之道... 彖曰泰小往大來吉亨 則是天地交而萬物 通也...
 51) 山風蠱: 象曰山下有風 蠱... 彖曰蠱剛上而柔下 巽而止蠱 蠱 元亨而天下治也...
 52) 山天大畜: 象曰天在山大畜... 彖曰大畜剛健篤實 輝光 日新其德 剛上而尚賢 能止健大正也...
 53) 地風升: 象曰地中生木 升... 彖曰柔以時升 巽而順 剛中而應 是以大亨...
 54) 天地否: 象曰天地不交 否... 彖曰否之匪人不利君子貞大往小來 則是天地...
 55) 澤雷隨: 象曰澤中有雷 隨... 彖曰隨 剛來而下柔 動而說 隨 大亨貞 无咎...
 56) 澤地萃: 象曰澤上於地 萃... 彖曰萃 聚也 順以說 剛中而應 故聚也...
 57) 天雷无妄: 象曰天下雷行 物與 无妄... 彖曰无妄剛 ... 動而健 剛中而應 大亨以正 天之命也...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맞추어 조건 없이 따르고 변하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당연히 생겨나는 관계가 된다. 本卦의 錯 관계에 들어가 살펴보면 山天大畜 錯卦는 澤地萃이고 地風升 錯卦는 天雷无妄이다. 錯卦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로 보완하고 채워주는 상대보완의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높은 하늘과 산·낮은 대지와 못은 서로가 對比되는 보완관계에 있다. 本卦 地風升의 錯卦 天雷无妄에서 升은 대지의 바람으로 솟아오르게 하고 无妄은 하늘의 우레로서 망령됨이 없도록 한다. 无妄의 망령됨이 없음은 升을 위함이 되겠다. 綜卦는 뒤집어 倒置시켜 놓은 관계로서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綜卦에 해당하는 山天大畜·天雷无妄과 地風升·澤地萃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늘의 산과 하늘의 우레는 크게 쌍입이 망령됨이 없다. 대지의 바람은 솟아오르고 대지의 못은 모이게 하니 이는 바람과 못의 특징을 하나로 대비시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互體가 錯綜 관계일 때는 本卦중에 錯綜관계도 있고 錯과 綜의 관계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卦의 근원과 내면에 숨어있는 의미와 상대성을 유추해 들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3. 錯의 관계에 대하여

- 互體 雷水解와 風火家人은 錯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그 本卦들은 모두 錯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다.

<표 4-3>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의 互體와 本卦】

錯 綜	互互體(본상)	錯互體(내상)	錯 本卦(의상)			
	水火 ≡ 既濟 ≡	雷水 ≡ 解 ≡	地山 ≡ 謙 ⁵⁸ ≡	重山 ≡ 艮 ⁵⁹ ≡	地火 ≡ 明夷 ⁶⁰ ≡	山火 ≡ 賁 ⁶¹ ≡
火水 ≡ 未濟 ≡	風火 ≡ 家人 ≡	天澤 ≡ 履 ⁶² ≡	重澤 ≡ 兌 ⁶³ ≡	天水 ≡ 訟 ⁶⁴ ≡	澤水 ≡ 困 ⁶⁵ ≡	

互體가 錯卦의 관계일 때는 그에 따르는 本卦도 모두 錯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地山謙·天澤履, 重山艮·重澤兌, 地火明夷·天水訟, 山火賁·澤水困은 錯의 관계이다. 地山謙과 天澤履는 겸손한 마음은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한 조신한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으며 重山艮 겹친 산중에는 重澤兌 못도 이산 저산에 거둬 있음음을 알 수 있다.

地火明夷와 天水訟은 암담한 어둠속에서 헤어나기 위하여 이 방법 저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송사임을 말하고 있고 山火賁와 澤水困은 산불에 못물이 말라가는 참담함을 관련지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錯의 관계는 빛과 그림자처럼 하나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것과 같은 관계로 볼 수 있다. 다음은 錯卦 관계에 해당하는 互互體 水火既濟의 互體 火澤睽와 互互體 火水未濟의 互體 水山蹇에 속하는 本卦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 互體 水山蹇과 火澤睽는 錯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그 本卦들 역시 錯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다.

<표 4-4>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의 互體와 本卦】

錯 綜	互互體(본상)	錯互體(대상)	錯 本卦(의상)			
	水火 ䷔ 既濟 ䷾	火澤 ䷔ 睽 ䷥	水天 ䷗ 需 ⁶⁶⁾ ䷄	風天 ䷗ 小畜 ⁶⁷⁾ ䷈	水風 ䷍ 井 ⁶⁸⁾ ䷯	重風 ䷭ 巽 ⁶⁹⁾ ䷸
火水 ䷔ 未濟 ䷿	水山 ䷇ 蹇 ䷦	火地 ䷔ 晉 ⁷⁰⁾ ䷢	雷地 ䷔ 豫 ⁷¹⁾ ䷏	火雷 ䷔ 噬嗑 ⁷²⁾ ䷔	重雷 ䷔ 震 ⁷³⁾ ䷲	

58) 地山謙: 象曰地中有山 謙... 彖曰謙亨 天道下濟而光明 地道卑而上行...
 59) 重山艮: 象曰謙山 艮... 彖曰艮止也 時止則止 時行則行 動靜不失其時...
 60) 地火明夷: 象曰明入地中 明夷... 彖曰明入地中 明夷 內文明而外柔順 以蒙大難...
 61) 山火賁: 象曰山下有火 賁... 彖曰賁柔來而文剛故亨 分剛 上而文柔故 小利有攸往 天文也...人文也...
 62) 天澤履: 象曰上天下澤 履... 彖曰履柔履剛也 說而應乎乾...
 63) 重澤兌: 象曰麗澤 兌... 彖曰兌說也 剛中而柔外 說以利貞...
 64) 天水訟: 象曰天與水違行 訟... 彖曰訟上剛下險 險而健 訟...
 65) 澤水困: 象曰澤无水 困... 彖曰困剛揜也 險以說...

互體가 錯의 관계이면 그에 속하는 本卦들 역시 錯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다. 火澤睽와 水山蹇은 錯卦에 속하는 互體이므로 水天需·火地晉, 風天小畜·雷地豫, 水風井·火雷噬嗑, 重風巽·重雷震 등 本卦들은 모두가 錯의 관계가 된다. 互體 火澤睽에 속하는 각 本卦에는 卦마다 등지고 눈 흘기는 일이 隱匿되어 있을 것이며 互體 水山蹇에 속하는 本卦들에는 각 절고 저는 隘路사상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水天需의 기다림 속에는 火地晉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갈등이 있을 것이고 하늘 바람이 불어 작게 쌓이는 風天小畜은 땅위에 우레가 칠 때에 대한 준비함이 무엇보다 필요 할 것이다. 水風井의 우물에 대한 문제는 火雷噬嗑의 엄중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重風巽의 바람이 거둑 불어 거세지면 重雷震의 우레가 거둑 따라올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4. 綜의 관계에 대하여

互體 雷水解와 水山蹇과는 綜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互體 雷水解와 水山蹇에 속하는 本卦는 綜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다. 따라서 互體가 綜의 관계이면 그에 속하는 本卦들 역시 綜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다.

-
- 66) 水天需: 象曰雲上於天 需… 彖曰需須也 險在前也 剛健而不陷 其義不困窮矣…
 67) 風天小畜: 象曰風行天上 小畜… 彖曰小畜 柔得位而上下 應之曰 小畜 健而巽 剛中而志行 乃亨…
 68) 水風井: 象曰木上有水 井… 彖曰巽乎水而上水 井 井養而不窮也…
 69) 重風巽: 象曰隨風 巽… 彖曰重巽以申命 剛巽乎中正而志行…
 70) 火地晉: 象曰明出地上 晉… 彖曰晉進也 明出地上 順而麗乎大明…
 71) 雷地豫: 象曰雷出地奮 豫… 彖曰豫剛應而志行 順以動豫…
 72) 火雷噬嗑: 象曰雷電噬嗑 先王以明罰則法 彖曰頤中有物 曰噬嗑 噬嗑而亨 剛柔分 動而明雷電 合而章 柔得中而上行…
 73) 重雷震: 象曰洊雷 震… 彖曰震亨 震來虩虩恐致福也… 震驚百里…

<표 4-5>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의 互體와 本卦】

錯綜	互互體 (본상)	綜 互體(내상)	綜 本卦 (의상)			
	水火 ䷗ 既濟 ䷾	雷水 ䷑ 解 ䷧	地火 ䷝ 明夷 ䷣	地山 ䷆ 謙 ䷎	山火 ䷝ 賁 ䷖	重山 ䷓ 艮 ䷳
火水 ䷔ 未濟 ䷿	水山 ䷖ 蹇 ䷦	火地 ䷔ 晉 ䷢	雷地 ䷲ 豫 ䷏	火雷 ䷲ 噬嗑 ䷔	重雷 ䷲ 震 ䷲	

互互體가 錯綜의 관계일 때는 그에 따르는 互體와 本卦에는 錯綜의 관계, 錯의 관계, 綜의 관계가 일정하게 섞여 있다. 그 중에서 互體 雷水解와 水山蹇은 綜의 관계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 本卦들 역시 綜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다. 互體 雷水解와 水山蹇에 속하는 各 地火明夷·火地晉, 地山謙·雷地豫, 山火賁·火雷噬嗑, 重山艮·重雷震은 각각 綜의 관계에 해당한다. 綜의 관계란 本卦의 爻자리를 거꾸로 倒置시킨 卦로서 자리가 180°로 바뀌는 卦이다. 따라서 그런 이치에 맞추어 의미를 지어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레와 물의 영김을 풀어내는 雷水解卦의 자리가 180°로 바뀌면 오히려 어려움에 휩싸이는 水山蹇이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해 水山蹇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리바꿈을 해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밝음이 땅속에 감추어져 움작달작 할 수 없는 地火明夷의 자리가 바뀌어 밝음이 땅 위로 올라온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火地晉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산이 大地 안에 감추어진 地山謙은 조용하게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대지위의 우레는 시끌벅적한 소란스러움이므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함을 말한다.

山火賁와 火雷噬嗑은 山 아래 아름답게 꾸미는 불이 山火賁卦라면 반대로 불과 우레의 火雷噬嗑은 번개과 천둥으로써 형벌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절제되지 않은 아름다움은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重山艮의 山과 重雷震의 우레는 산이 중복되어 그치는 것과 반대로 우레가 거듭되는 움직임의 관계로 말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綜 관계는 어떤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互體 火澤睽와 風火家人은 綜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그 本卦들 역시 綜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다.

<표 4-6>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의 互體와 本卦】

錯 綜	互互體	綜 互體	綜 本卦			
	水火 ≡ 既濟 ≡	火澤 ≡ 睽 ≡	水天 ≡ 需 ≡	風天 ≡ 小畜 ≡	水風 ≡ 井 ≡	重風 ≡ 巽 ≡
火水 ≡ 未濟 ≡	風火 ≡ 家人 ≡	天水 ≡ 訟 ≡	天澤 ≡ 履 ≡	澤水 ≡ 困 ≡	重澤 ≡ 兌 ≡	

互體 火澤睽와 風火家人에 속하는 各 本卦 水天需·天水訟, 風天小畜·天澤履, 水風井·澤水困, 重風巽·重澤兌는 倒置의인 관계에 있는 綜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爻位가 뒤집어지는 이치로서 爻位에 따르는 입장 차이가 있을 것이다. 少女와 中女의 만남으로 불편한 火澤睽卦는 少女인 澤卦 대신 長女인 巽風을 上卦로 하고 上卦에 있던 中女를 下卦로 位를 정한다면 火澤睽의 문제점은 순식간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본괘에 속하는 水天需와 天水訟의 관계이다. 하늘위에 물이 있는 水天需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天水訟의 訟事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니 물을 위로 하고 하늘을 아래로 하는 획기적인 발상만이 訟事의 어려움을 해소 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風天小畜 하늘 위의 바람과 天澤履 못 위 하늘은 작게 쌓임을 밝아 나가는 관계이며 水風井의 우물물이 澤水困의 못물로 그 형상이 바뀐다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重風巽의 바람이 거둬 불면 重澤兌의 못물이 거둬 일어날 것이니 이러한 것은 重風巽이 일으키는 重澤兌의 자동적인 反響이 된다.

V. 結 論

한 개의 卦를 풀어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漢代의 京房에서부터 시작하여 靑나라 末期까지 주로 많이 활용해 온 대표적인 卦 해석법은 본과의 之卦와 錯綜, 互體法이었다. 그 중에서도 互體는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지며 卦 해석을 풍요롭게 하였다. 즉 之卦를 互體로 해석하거나 또 錯綜·錯·綜을 互體로 해석하여 일의 중간과정과 일의 성격과 자질을 알고자 할 때 어김없이 互體로 접근하여 그 象과 義를 많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互體는 卦의 初爻와 上爻를 제외한 몸체(2爻에서 5爻)를 위주로 卦를 세우기 때문에 中爻라고 말하기도 한다. 본 논고는 64卦를 外象, 16卦의 互體를 內象, 4개의 互互體(乾·坤·既濟·未濟)를 本象으로 정리하고 本象에 근거한 互互體에 따른 각 互體·本卦의 錯綜·錯·綜의 관련성에 관하여 연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本象에 해당하는 互互體 乾·坤은 錯관계에 해당하며 既濟·未濟의 관계는 錯綜 관계에 해당한다. 그에 속하는 모든 互體와 本卦는 錯·錯綜·綜의 관계로 짝지을 수 있었다. 錯卦란 陰陽으로 맞춘 卦로서 陽으로 이루어진 乾卦를 陰으로 代置한 坤卦의 관계가 錯卦이다. 따라서 互體로 말하면 重天乾·重地坤, 天風姤·地雷復, 澤天夬·山地剝, 澤風大過·山雷頤괘이다. 錯卦의 관계적 의미는 裏面の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공간의 위아래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 만남과 생겨남, 자름과 깎임, 크게 지나침과 길러냄, 빛과 그림자등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같은 맥락으로 동시에 존재하므로 만약 따로 분리해서 해석한다면 반쪽만 해석하게 되어 일면만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온전한 괘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錯卦의 의미를 看過해서는 안 될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왕부지의 乾坤並建論과 같다고 볼 수 있다. (互互體 乾·坤괘는 綜을

했을 때 같은 괘가 되므로 생략한다.) 互互體 錯綜의 관계는 錯관계보다 매우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2. 互互體 乾·坤의 互體와 그에 속하는 本卦의 錯卦는 (互體와 겹치는 本卦는 省略) 天火同人·地水師, 澤火革·山水蒙, 天山遯·地澤臨, 澤山咸·山澤損, 火天大有·水地比, 雷天大壯·風地觀, 火風鼎·水雷屯, 雷風恒·風雷益, 重火離·重水坎, 雷火豐·風水渙, 火山旅·水澤節, 雷山小過·風澤中孚이다. 이들의 조합은 한결같이 서로를 보완하고 채워주고 존중하는 관계로 손등과 손바닥처럼 동시에 존재한다. 함께하는 同人의 때에는 師가 필요하고革이 일어나는 때는 蒙昧한 때이며 臨했기 때문에 遯을 만나게 된다. 소녀와 소년이 함께 하면 덜어 내어야 할 일이 생기고 하늘과 태양은 땅과 물이 있어야 하며 매우 큰 하늘의 우레 소리가 있다면 땅 위를 스치는 작은 바람소리도 있다. 불과 바람은 물과 우레를 부르고 우레와 바람이 恒久하다면 나날이 유익함이 더해 갈 것이다. 태양이 거듭 걸리는 것은 위험한 물구덩이가 거듭 됨과 같고 우레와 번개가 풍성하다면 바람에 물이 일어날 것이다. 불과 산을 조절하는 것은 물과 못이고 작은 지나침은 돈독한 믿음으로 지어간다. 이상과 같이 互互體 乾坤에 속하는 互體·本卦의 錯 關係를 정리해 보았다.

3. 本象에 해당하는 互互體 既濟·未濟의 관계는 錯綜卦에 해당하므로 그에 속하는 모든 互體와 本卦에는 錯綜·錯·綜의 관계가 골고루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互互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의 互體에서 錯綜의 관계는 水火既濟·火水未濟, 雷澤歸妹·風山漸卦이고 錯의 관계는 雷水解·風火家人, 火澤睽·水山蹇이다. 綜의 관계는 錯의 관계를 교환하면 綜의 관계가 되는데 雷水解·水山蹇, 火澤睽·風火家人卦이다.

錯綜互體 水火既濟·火水未濟의 錯綜 本卦는 水火既濟·火水未濟, 風山漸·雷澤歸妹이고 錯本卦는 風火家人·雷水解, 水山蹇·火澤睽이고 綜本卦는 風火家人·火澤睽, 水山蹇·雷水解卦이다. 錯綜互體 雷澤歸妹·風山漸卦의 錯綜 本卦는 地天泰·天地否, 山風蠱·澤雷隨卦이며 錯의 本卦는 山天大畜·澤地萃, 地風升·天雷无妄卦이고 綜의 本卦는 山天大畜·天雷

无妄, 地風升·澤地萃卦이다.

錯互體 雷水解·風火家人의 錯本卦는 地山謙·天澤履, 重山艮·重澤兌, 地火明夷·天水訟, 山火賁·澤水困卦이다.

錯互體 火澤睽·水山蹇의 錯本卦는 水天需·火地晉, 風天小畜·雷地豫, 水風井·火雷噬嗑, 重風巽·重雷震卦이다.

綜互體 雷水解·水山蹇의 綜本卦는 地火明夷·火地晉, 地山謙·雷地豫, 山火賁·火雷噬嗑, 重山艮·重雷震卦이다.

綜互體 火澤睽·風火家人의 綜本卦는 水天需·天水訟, 風天小畜·天澤履, 水風井·澤水困, 重風巽·重澤兌卦이다.

4. 錯의 관계는 陰陽의 관계로서 보이는 부분 뒷면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함으로써 동전의 앞뒤 관계와 같다. (결론1,2 참조) 綜의 관계는 각 爻의 자리가 뒤바뀜으로써 對照的인 반대의 입장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제에 봉착하거나 반대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할 때는 꼭 챙겨보아야 할 중요한 관계이다. 錯卦에 해당하는 중천건·중지곤의 관계에서 綜의 관계는 같은 패가 된다.

綜卦의 관계에서 雷水解와 水山蹇을 예를 들면 이는 長男이 上卦에 있고 中男이 下卦에 있어 잘 풀려나가던 雷水解卦가 長男이 없는 그 자리에 中男이 오고 少男이 下卦에 있으면 水山蹇이 되어 어렵게 된다는 말일 것이다. 또한 火澤睽와 風火家人에서도 어긋나는 睽卦의 下卦 少女가 사라지고 中女가 下卦로 오고 長女가 上卦로 온다면 風火家人이 되어 안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려움도 여러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 綜의 관계일 때는 위아래의 자리를 교정함으로써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으로 互互體·互體 및 本卦의 錯·錯綜·綜의 관계일 때를 간략하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의 관계는 三象(本象·內象·外象)으로 이어져 각 패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므로 卦 해석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參考 文獻〉

- 金麟哲, 『茶山の『周易』解釋體系』, 경인문화사, 2003.
- 방 인, 『다산 정약용의 『周易四箋』 기호학으로 읽다』, 예문서원, 2014.
- 徐命膺, 『參同攷』, 이봉호 역주, 예문서원 2009.
- 申性秀, 『周易通解』, 대학서림, 2005.
- 王夫之, 『繫辭傳』, 김진근 옮김, 학고방, 2014.
- 王夫之, 『周易內傳 1권-4권』, 김진근 옮김, 학고방, 2014.
- 이규태, 『新열하일기』, 신원, 1997.
- 장봉혁, 『주역전의대전』, 경학연구소, 2011.
- 張俸赫, 『學易綜述』, 학고방, 1993.
- 丁若鏞, 『周易四箋』, 방인 옮김, 예문서원, 2014.
- 朱 熹, 『易學啓蒙』, 珍藏版本武陵出版有限公司, 1986.
- 周伯昆, 『易學 哲學史 1권-8권』, 김학권 외 4명 옮김, 소명, 2012.
- 진고웅, 『관자사편전해』, 商務印書館, 2006.
-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대원기획출판, 2001.
-
- 申性秀, 『『周易』의 미래예측과 사공간 인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 연구서, 2016.
- 申性秀, 『『周易』의 미래예측과 사공간 인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 연구서, 2016.
- 정병석, 「방통과 융합: 『周易』, 해석 공간의 확장 and 연속」, 한국주역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6.
- 정병석, 「방통과 융합: 『周易』 해석 공간의 확장 and 연속」, 한국주역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
- 최인영, 「『주역』의 과체와 해석 — 호호체(互互體) · 호체(互體) · 본괘(本卦)의 상관성과 『주역』 해석」, 『한국철학 논집』 53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 최인영, 「『周易』의 互體論에 대한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Abstract

Analysis of Hoche's Chakjong Relations in 『Zhouyi』

Choi Yeen-young*

The term Chakjong(錯綜) was first used by Kong Yinda during Tang Dynasty. Lai Zhide argued that six Hyos should manifest the logic of yin and yang circulation based on the changes of Chak·Jong and Junghyo even after their own changes. Chakgoae is the substitution of yin with yang and vice versa. Jonggoae is the inversion of Goae upside down. Chakjonggoae is the same Goae even with Chak or Jong. Since Hohoche Jungcheongeon and Hohoche Jungjigon are in yin-yang relations, they are in Chak relations but show no changes in case of Jong. It is thus possible to pair Hoche of Hohoche Jungcheongeon and that of Hohoche Jungjigon with Goae in Chak relations. As a result, when Hohoche is in Chak relations, Hoche can also be paired in Chak relations. Even the Bongoaes of the Hoche can be paired in Chak relations. Hohoche Suhwagije and Hohoche Hwasumije are in Chakjong relations each other.

Since there is an even distribution among Chak, Chakjong, and Jong relations between the Hoche of Hohoche Suhwagije and that of Hohoche Hwasumije, the Bongoaes of each Hoche also show an even distribution among Chakjong, Chak, and Jong relations. There is an even distribution among Chak, Chakjong, and Jong relations in Hoche and Bongoaes based on the Chakjong relations between Hohoche Suhwagije and Hohoche Hwasumije, which means that they are entangled in even more complex ways than Geon and Gon in simple Chak relations. This study set out to categorize their Hohoche, Hoche, and Bongoae into Three Sangs including Bonsang, Naesang, and Oisang and analyze their semantic relations leading to Chakjong, Chak, and Jong relations based on the universal content of "Daesangeon" and "Danjeon" in Book of Changes. Hoche and Bongoaes of Hohoche Jungcheongeon and Jungjigon in Chak relations form mixing relations of ying and yang, duplicity, and double-sidedness, which means that they are in mutually supplementary

* Lecturer of Kongju Univ. / ch105050@daum.net

and fulfilling relations. There are Chakjong relations among Hohoche Suhwagije, Hochejung Hwasumije and Suhwagije, and Noitaekguimaewa Pungsanjeom. There are Chak relations between Noisuhaewa Punhwagain and Hwataekgyuwa Susangeon. There are Jong relations between Noisuhaewa Susangeon and Hwataekgyuwa Punhwagain. When Hohoches are in Chakjong relations, Hoeches will show an even distribution among Chak, Chakjong, and Jong relations with Bongoaes following the case of Hoches. While Chak relations are automatically accompanied, Chakjong relations will still have the same Goaes even with yin and yang changing places or turning upside down. They will thus have good and ill luck and likes and dislikes alternating in turn. Good luck has ill luck latent in it and vice versa. Likes have dislikes latent in them and vice versa. They thus remind one of the meanings of expressions, "Clouds always follow the sunshine" and "An evil may sometimes turn out a blessing in disguise."

Jong relations have Goaes deriving from the inversion of Hyo and Wui. If roles are identified according to Hyo and Wui, the easiness of restoring a situation of good luck will also be discovered. Hoche implies that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connected meanings among Chakjong, Chak, and Jong serving as bridges among three Sangs(Hohoche-Bonsang, Hoche-Naesang, and Bongoae-Oisang) will enable broad interpretations of Goaes based on more grounds.

【Key words】 Chak, Chakjong, Jong, Hohoche, Hoche, Bongoae, Three Sangs

투고일 : 5월 20일, 심사완료일 : 6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18일

